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금강경(9월 16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이 사상이 중요하다.

<금강경>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라는 사구계가 중심사상입니다. 중간에는 '약이색견야 이음승구야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인데, 석가모니라는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찾으려한다면 그 사람은 사특한 도리를 행하기 때문에 사도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부처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석가모니도 이름뿐이지 석가모니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을 파해 주는 겁니다.

경의 말미에 이르러 '일체유위법 여공 환포영 여로역여진 응작여시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라.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은 이와 같고,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 같이 관찰하여야 하느니라.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에서 길을 가다 천만원짜리 수표를 주웠어요. 깨어 보니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전해요. 꿈은 실체가 없는 것이예요. 환은 환각이라, 부스럭하는 소리에 아무 것도 아닌데 놀래서 뛰다가 물을 차서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데 왜 놀라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물체가 없으면 안 생겨요. 물거품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으니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라.' 이것을 여실히 관하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고, 무리한 욕심을 낼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현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처님께서 용기를 주려고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했습니다. '사바세계는 고통 뿐 이기 때문에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죽을 고생을 해야 성과가 있겠지요. 학자가 되려는데 잘살고 잠을 다 자고 놀고 다 놀고 하면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행이에요.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지라고 부처님이 '이 세상은 괴로운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사고(四苦) 팔고(八苦) 등 전부가 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다가 인연 다하면 욕심을 벗어 놓고 가는 거예요.

<금강경>의 공(空)사상은 부처님만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당시 이전에 있던 것들 중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상은 오로지 부처님만 주장하신 창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상이 <금강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조 홍인 대사가 <능가경>보다 <금강경>이 소의경전으로 적합하다고 한거죠. 그래서 선종 소의경전이 <금강경>으로 바뀌었어요.

수행에는 많은 문이 있다 하지만 나는 크게 넷으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경절견성(經截見性)문이니 길이 있던 없든 바로 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성문은 참선을 해서 견성하는 문이지요.

두 번째로 염불문이니 이는 염불을 아주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뒤야, 죽은 후에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수행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수명이 한정되어 없어요.

경전과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과 부처님만 있다고 해도 포교가 스스로 되는 것은 아



설법전을 가득 채운 1500여명의 불자들이 지관 스님의 <금강경>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세 번째는 즉신성불문입니다. 이 몸이 바로 성불한다는 뜻이에요. 대일여래를 법신으로 하는 진언종에서는 진언을 외우면 진언의 위신력으로 업장이 녹아져 마음이 밝아져서 성불한다 합니다. 이 몸이 바로 성불하는 것이 진언종의 수행방 법입니다.

마지막 수행은 의교수행문입니다. 경전에 의지해서 마음을 깨친다는 수행입니다. <고승전> 가운데 '감통부'를 보면 <금강경> <법화경> 등을 일념으로 읽고 외워서 업장이 녹아 깨달은 스님들 얘기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든다면 육조 혜능 선사

저장거리서 처음 들은 <금강경> 가운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부분이 귀에 걸려 그 길로 오조 홍인 대사 밑으로 들어가 공부해서 깨쳤지요. 중봉(中峰)선사는 <금강경>을 읽다가, 말세에 <금강경>을 의지해 수행하고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짊어지고 대표할 존재라는 구절을 보다가 견성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지하고 깊은 수행을 하기보다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신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전수행으로 깨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전과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과 부처님만 있다고 해도 포교가 스스로 되는 것은 아

경전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uns.net에서  
서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왕복 1만원)

질의

북방불교 전통 넓게 펼쳐나가야



진월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질문] <금강경> 등 대승경전을 북방불교는 귀하게 여깁니다. 이에반해 남방불교에서는 팔리어삼장만 신성시하고 그 외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위경이라고 배척합니다. 또 남방부는 위빠사나만 숭상하고 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단점을 척파해 주신다면.

[지관 스님]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을 북방불교라 하고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등을 남방불교라 합니다. 남방불교계에서는 팔리어 경전과 산스크리트어 경전만이 불교의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실로 팔리어장경도 극히 적은 소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방불교는 북방불교보다 논리적인 교리가 빈약합니다. 북방불교는 보고 중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북방불교의 장점을 천명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육조 부대사와

야보 스님 등은 <금강경>을 선으로 해석하고, 규봉, 종경 스님들은 교로 해석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야보 스님의 송(頌)과 함허 스님의 <설의>입니다. 야보 스님의 계승을 일부 소개한 '밤에 달이 흰히 비친 뜰 앞에 바람이 부니 대나무가 움직이지, 대 그림자가 아무리 뜰을 쏘어도 뜰에는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竹影掃庭塵不動

月穿潭底水無痕)'라는 계승으로 <금강경>을 설명했어요. 삼라만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 또는 공사상이며, 부처님의 진리이자 중도예요.

이런 사상은 남방불교에서는 못 찾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경을 보더라도 새벽에 한 시간은 꼭 참선해야 합니다. 요즘 남방 위빠사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승언경> <원각경>에 비발사나(毘鉢奢那) · 선니(禪那) · 삼마발체(三昧鉢提) 등 소승선이 있어요.

위빠사나는 북방불교의 한 부분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몽뚝한 송곳은 오래 갈수록 한 번 뚫으면 구멍이 크고, 예리한 송곳으로 뚫으면 쉽게 뚫리지만 구멍이 작아요. 위빠사나를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달마선 정통을 이어받은 조계종이기에 간화선을 더욱 펴고 확장하고 더 쉽게 대중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삼심불가득'이니 나였으면 면박 줬을 것

[질문] <금강경>에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심불가득'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지관 스님] 내가 만일 그때 그 질문을 받았다면 딱 스님의 방이 아니라 강한 어조로 면박을 주어 망신을 시켰을 것입니다.

삼심불가득인데, 과거심 미래심 다 찾을 수 없는데, 그게 마음으로 안되기 때문에 딱산도 몽둥이 쓴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에 그래서 딱산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도 면박만으로, 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종교라는 것은 사회학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향기롭고 살기 좋게 만드는 사회학과 같은 것입니. 불교도 종교학 종교사회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과 수행의 두



이명래(충남대 철학과 교수)

방법이 있습니다. 잘 살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합니다. <금강경> 속에서 혁명 · 수행 요소를 답을 수 있는 정신 박만으로, 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관 스님] <금강경>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질문자 말씀에 혁명과 수행이 있는데, 혁명은 실천적이고 어떤 형태의 고통을 동반해요. 고통이 차면 짜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정신이 수반되지 않는 외형적인 혁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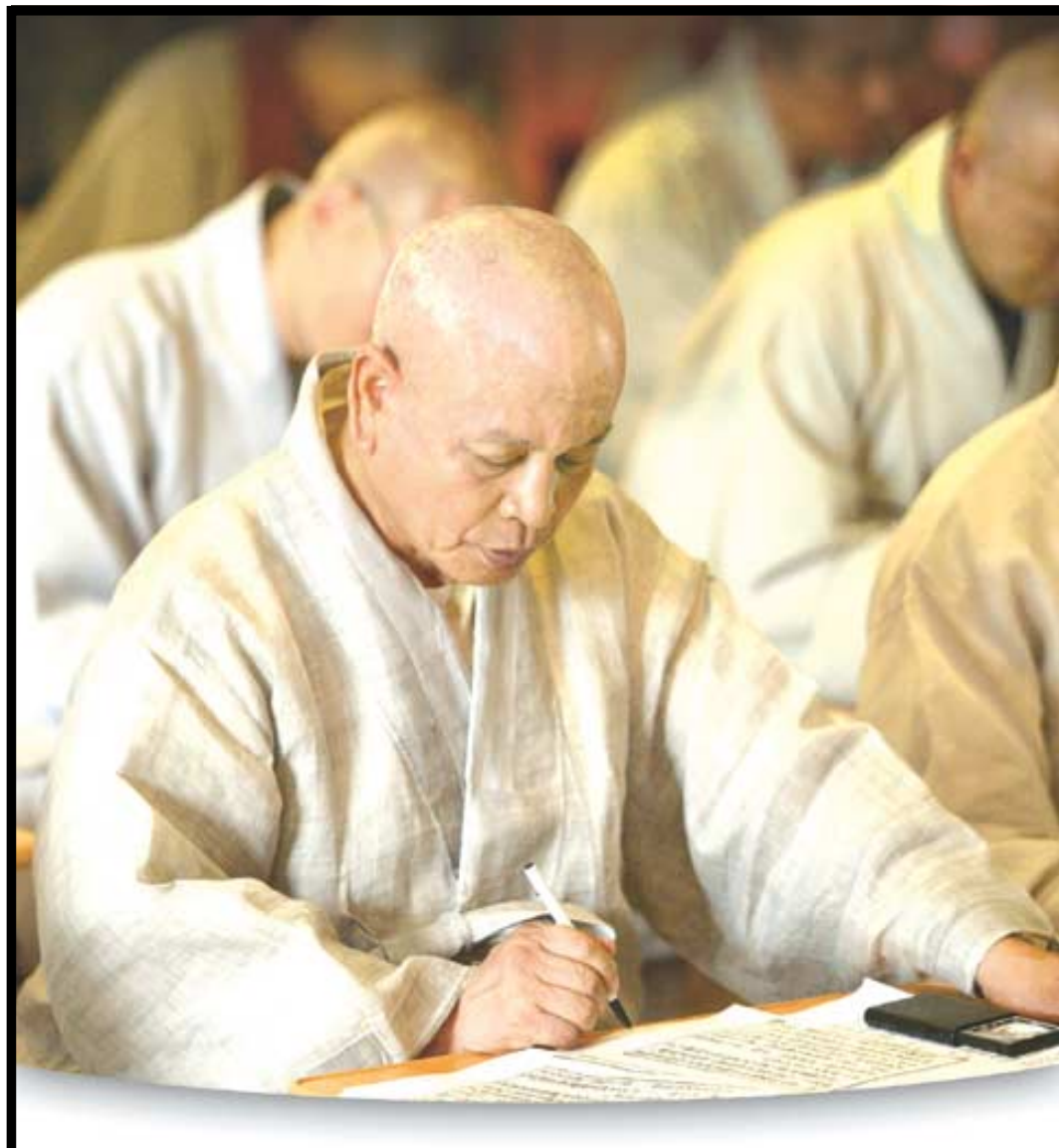
구태를 제거하는 것 뿐이지 '환자'가 죽는 것은 생각이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과 교화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바탕에서 병도 고치고 잘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비, 의심, 분노를 다 표현하는 심일면 관세음보살처럼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함께 절복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불교의 파사현정이에요. 정의를 나타내자면 자비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 강한 힘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교화는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는 것이예요. 포악한 이에게는 부드럽게,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성질이 급한 사람은 느긋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교화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바탕으로 모든 울지 않은 것을 바르게 교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봉선사 설법전 | 주최 봉선사·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31) 527-1951-3  
**2006. 9. 16 ~ 11. 25**

經典  
수행을 통한 깨달음



법회 동영상 중계는 bonguns.net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지는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

봉선사 강설대법회  
11월25일 보살계수계법회  
031) 527-1951-3